

새로운 창업정신으로 국가 방재에 기여



李 大 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방재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협회 전 임직원은 혼신을 다해 분발해야’

정부는 오는 86년에 끝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균형의 확산에 의한 국민생활 안정 등 질적 개선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기본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기술혁신과 산업능력의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개발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맞는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국민생활 안정에 저해가 되는 각종 재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업시설을 비롯한 건물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면 될수록 화재 등 재해의 규모도 대형화 되며, 유류·가스연료의 사용증가, 가정용 전기제품 증가 등 생활의 선진화에 비례하여 재해 발생의 빈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와 70년대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으나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방재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전반적인 방재기술의 선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우리나라 방재선진화를 위하여 과거 10여년간 실시하여온 안전점검과 연구결과를 기초로 방재시험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그 일부인 1차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험소가 완공되면 방화재료 및 기초화재 시험연구와 방재기술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국가방재에 대한 기여는 지대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종래에 방재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 부수로 발간·배포해 왔던 「화재안전점검」지를 「방재와 보험」지로 개편하여 순수 방재기술 뿐만 아니라, 보험과 방재에 관한 기술정보, 상식 등을 폭넓게 제공함은 물론 특수전문 소유주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발간부수를 늘려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방재시험소 설립과 더불어 각종 방재기술을 보다 널리 알려 방재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금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방재시험소 설립, 업무의 전산화, 보험부보율 제고 등은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방재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만큼 협회 임직원은 새로운 창업정신으로 한층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